



내 아이는 내가 낳는다

장은주/임산부 전용 도서관 '토끼와 여우' 관장

임 산부 전용 도서관을 개관한지도 이제 어언 1년이 지났다. 처음 도서관을 차릴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임산부 전용 도서관은 곧 망할거라고 예견했다. 애 낳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거기 무슨 공부할 일이있냐고, 절대 안되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라고,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내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출산의 주체는 분명 엄마와 아기인데, 현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 힘이 있다. 출산에 있어서의 진리란 '그 누구도 내 아이를 대신 낳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출산의 주체가 뒤바뀌어 버렸다.

임신부들은 대부분 태교만 한다. 출산을 대비하고, 준비하지는 않는다. 왜? 어느 누구도 출산의 주체가 엄마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이 세계1위라는 것을 들며 의료진들의 양심문제를 들고 나온다. 의료법과 시스템이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의 양심만 탓하며 욕만 해서는 일이 해결될 수 없다. 현재의 법과 시스템 하에서도 아기는 태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제왕절개라는 것은 "수술"이라는 점이다.

즉,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행해지는 의료 행위인 것이다. 누가 동의했는가? 엄마와 아빠다.

의사가 설득을 했건, 어쩔건 동의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출산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아는 것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다. "골반이 좁 좁네", "혹은 양수가 좀 적네"하는

말만 들어도 불안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러니 웬지 바른 소리를 하는 것도 의심되고, 의심되어도 달리 판단할 능력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 전개될 뿐이다. 그러나, 출산 전에 분만법의 종류, 자신의 신체 상황, 아기의 상태, 분만 당시 엄마, 아빠가 할 일들,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의 조언을 토대로 스스로가 판단한다. 제왕절개를 해야겠다는 조언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제왕절개로만 끝내고 허탈해하지 않고 바로 엄마 젖을 먹이며 아기 마사지에 들어간다. 제왕절개시의 충격과 불안을 엄마, 아빠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으면, 하혈을 하는 상황에서 제왕절개를 권유받고도 의료진에게 수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네 시간 후 아기를 자연 분만으로 낳는 엄마도 있다.

의료진뿐 아니라 친정 엄마, 가족들조차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4.2kg의 아기를 당당하게 자연분만 하고 나와 "제 골반 좋다니까요." 하던 엄마도 있다.

출산이라는 것. 의료진이 알아서 해 주고 엄마는 누워만 있는 것이기엔 그 의미가 너무나 소중한다. 우리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불안감에 떨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아이를 낳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당당하게 출산에 임해서 의료진을 감동시켜버리는 것이. 그래서, 자랑스럽게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란 주어진 조건하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해 버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토끼와 여우를 지탱하게 해주는 소중한 힘일 것이다. (www.ohmybaby.co.kr)